

인천공항 T2, 1년 만에 여객 1900만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개장 1년 만에 누적여객 1900만명을 돌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T2가 문을 연 지난해 1월18일부터 1년 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여객은 683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9.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T2를 이용한 여객 수는 1909만3392명(전체 여객 중 28%)으로 집계됐다.

여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인천공항은 개항(2001년 3월29일) 이후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 여객은 2017년 대비 약 10% 증가한 6825만9763명을 기록했으며 연간 매출 역시 2017년 대비 약 8.5% 증가한 2조363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공항(국제공항 협의회 기준 현재 7위)의 국제여객은 2017년 6152만572명 대비 10% 증가한 6767만147명을 기록해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5위)과 싱가포르 창이공항(6위)을 제치고 사상 첫 세계 공항 5위에 진입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여객 증가로 T2를 사용 중인 항공사도 4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대한항공(KF)과 델타항공(DL), KLM 네덜란드 항공(KL), 에어프랑스(AF) 등 4개 항공사가 2터미널 개항과 동시에 이전해 사용 중이며, 같은해 10월 아에로멕시코(AM), 알리탈리아(AZ), 중화항공(CN),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GA), 사뮈항공(MF), 체코항공(OK), 아에로플로트(SU) 등 7개 항공사가 추

인천공항 전체 6838만명...세계 빅5 눈앞

매출 작년보다 8.5% 증가...2조3637억원

T2 입점 항공사 종전 4곳에서 11곳으로

출국시간도 T1·T2 각각 4분과 10분 단축

가 이전하면서 2터미널을 사용하는 항공사는 총 11개사로 늘어났다.

이들은 모두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로 이들은 여객기 좌석공유(코드셰어) 등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T2가 개장하면서 승객들의 출국 시간도 크게 단축 됐다.

종전 인천공항의 평균 출국 시간은 41분이 소요됐다. 그러나 T2가 개장하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1터미널(T1)의 경우 여객분담률 72%, T2는 28%로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T1의 경우 평균 출국 소요시간은 37분으로 나타났고, T2는 31분으로 각각 4분과 10분이 단축됐다.

T2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승객들의 빠른 출국수속을 위한 최첨단 시설이 곳곳에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셀프 체크인·백드롭 기기와 스마트 수하물확인시스템 등이 도입돼 이용객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공항 곳곳을 누비며 이용객들의 안내를 돕고 있으며 특

히 어린이들의 인기가 높다.

앞서 T2는 개장 초 일부 여객기들이 승객들의 수하물 1000여개를 놓고 출발하면서 '수하물 대란'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대란 속에서 공항과 항공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수하물 누락 발생률을 10만개 중 0.5개로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전 세계 공항 평균 11~14개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입국장 면세점을 국내 공항 최초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사는 인천공항 T1에 두 곳과 T2 한 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면 출국 시 구입한 면세물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입국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출국장 면세점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있는지는 불확실도 나오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술과 초콜릿 등 10여가지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담배 등의 경

역대상은 제외된다. 공사는 여행자의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T2를 확장하는 4단계 건설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 '인천공항 제4활주로 착공식'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을 지난해 1월 개장한 T2의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을 골자로 하며, 약 4조200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2019년에는 T2 확장공사 착공(2019년 하반기 예상) 등 주요공정이 계획돼 있으며, 2023년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T2의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현재 1800만명에서 46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전체 여객수용능력은 현재 7200만명에서 1억명으로 증가해 초대형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난해 개장한 인천공항 T2가 개장 1년 만에 누적여객 1900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인 개장에 이어 단기간에 안정적인 운영체제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T2 개장 효과를 바탕으로 여객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만큼, 4단계 건설사업을 본격화해 인천공항 연간여객 1억명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해결 '뉴딜일자리' 5450명 선발...1월 최대 215만원

서울시, 21일부터 2주간 129개 사업 1005명 우선 선발

서울시는 20일 올해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54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지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다. 지난 6년간 2만1000개의 뉴딜일자리가 제공됐다.

뉴딜일지리의 일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실무 일자리로 구성·운영된다. 시급 1만원이 넘는 서울형 생 활임금이 지급되고 공휴일 유급휴

가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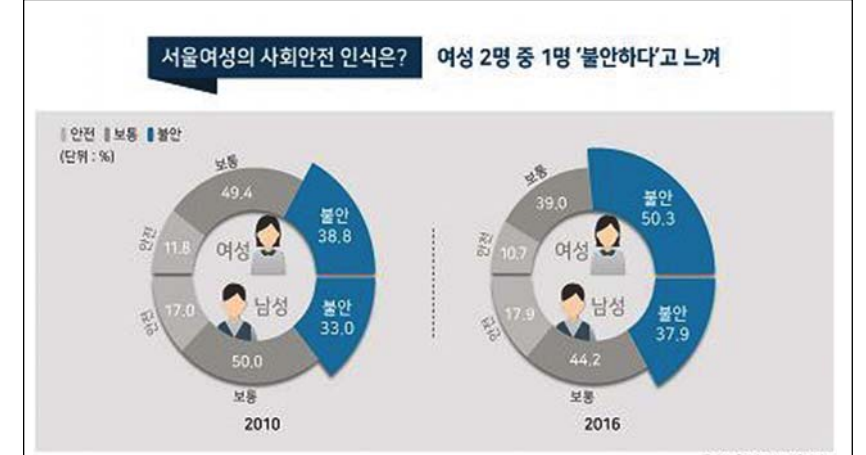
시는 1차 모집기간인 21일부터 2월1일까지 129개 사업에서 1005명을 우선 선발한다. 향후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사업별로 수시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요 일자리로는 경제분야 시민 일자리설계사(98명), 문화분야시립 미술관 전시큐레이터(20명), 복지분야 주거복지매니저(23명), 여성일자 리메이커(66명), 환경·안전분야 주

(Zoo)아카데미 동맹전문가(17명) 등이다.

참여자는 장래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일을 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50 원)을 적용해 월 최대 215만원을 받는다.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등의 근로조건도 향상됐다.

시는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통해 자기진단을 받고 분야별 전문 직무교육 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여성 절반 "우리사회 불안해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절반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안은 지난 6년간 11.5%p나 증가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8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50.3%는 우리사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는 상급자(사장·상사), 동료 순으로 많았다. 살인사건 가해자 중 34.5%가 애인·친족으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22.3%)보다 12.2%p 높았다.

서울여성의 안전교육 경험(46.5%)은 남성보다 13.8%p 낮았다. 특히 30대 이후 연령대에서 성별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부의 여성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방법원 여성재판관, 서울지방검찰청 여성검사 비율은 약 30%였다. 서울고등검찰

서울시, '2018 성(性)인지 통계'...사회안전 불안감 6년새 11.5%p ↑
지하철 범죄 중 58.8% 성범죄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80.3% 상급자

더 많이 느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의 불안감이 가장 높았다. 불안요인 중 범죄발생에 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이어 신종질병, 건축물·시설물,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 6년간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감 상승폭은 7.6%p로 남성의 범죄피해 불안감은 매년 증가해 2016년 71.9%로 매우 높았다. 여성과 남성의 불안감 격차는 20대(30.2%p)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7년 서울지하철 범죄 3082건 중 성범죄가 1811건으로 절반 이상(58.8%)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성범죄 중 60.4%(1094건)는 추행, 39.6%는 불법촬영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호선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9호선, 1호선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80.3%

청 여성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여성판리자 비율은 10%p 미만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8 성(性)인지 통계'는 범죄·재난·교통안전·안전환경 등 4개 부문, 14개 영역, 359개 통계지표로 구성해 여성과 남성의 안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성인지 통계는 책자로 발행해 지자체와 시립도서관, 대학교 등에 배포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analysis>)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통계 결과는 여성안전 사업 추진 등 '서울시 여성안심 특별시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격년으로 테마별 성인지통계를 작성해 성별영향평가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공동구매장소 정보지원
湖南新聞
 전판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